

주일가정예배

2022년 3월 27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5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 6)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봄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우리 영혼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게 하옵시고, 영의 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의 능력을 꽃피우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여전히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긴 겨울 속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생명의 능력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소서, 상처 입고 죽어가는 그 나라에 소망이 꽃 피우게 하옵시고, 생기를 잃어버린 그 땅에 생기를 불어주소서 평화의 봄이 오게 하옵소서.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436장 다같이

1.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 주안에 감추인 새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함께 살리라

3.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명 얻은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맘 새하늘이로다

4. 주따라 가는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탈아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함께 살리라

(후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11장 12절 인도자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설 교 『하나님의 침공』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492장 다같이

1.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2.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간 후에
 주의 품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3.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곤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4.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을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후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 힘쓰는 지도자가 되도록, 분열이 사라지고 통합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홀리클럽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하나님의 침공

마태복음 11:12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와 회의론자들을 위한 사도다. ▶ 루이스와 그의 부인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그린 영화 <새도우 랜드>에서 “이 세상은 그림자로 드리워진 땅이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을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세상도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빛과 선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한다. ▶ 우주는 두 개의 법칙이 지배한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자연법칙이고, 하나는 자유 선택이 강조되는 인간 본성의 법칙(도덕률)이다. 인간에게 완벽한 도덕률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은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안에 새겨놓은 것의 반향이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불평과 분노와 변명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도덕률 반응은 유물론으로는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종교적인 관점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종교적인 관점에 따르면, 우주의 배후에는 정신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위해,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려는 목적에서 우주를 만들었다. 과학으로는 어느 관점이 옳은지 증명할 수 없다. 인간만이 내부 정보를 통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법칙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 ▶ 신적인 존재는 아주 위대한 예술가이면서 절대선이다.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그 어떤 노력도 쓸 데가 없다. 반면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고, 이 경우에도 역시 소망이 없다. 절대선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다. 하지만 옳음을 명령하는 그 존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간을 용서하는 인격적 존재다. ▶ 기독교는 이 성찰과 딱 맞아떨어진다. 기독교는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세상이 잘못되어 버린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지을 자유의지까지 주셨을까? 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자유의지이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자유의지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 없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 치유책을 제공하셨는데 바로 예수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한다. ▶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된 구원과 천국. 하지만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11:12). 수동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을 당한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공해 들어오신다. 지체하시는 이유는 자진하여 그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때에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려 하면 이미 늦는다. 지금은 옳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